

신세대 불자주부 "바쁘다 바빠"

BBS 문화센터등 20여 교양강좌 수강 열기 서예·합창·판각등 배우며 불심도 복돋아

아침 11시. 신세대불자 주부들은 집에 없다. 남편은 직장에서 아이들은 유치원과 학교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에 주부들 역시 바쁘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다. 언제나 한가지 이상은 배우야 한다는 것이 요즘 신세대불자 주부들의 생각이다.

신세대불자 주부들은 주부도 전문직이라고 여긴다. 가족에 대한 끝없는 희생보다는 자기 개발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중시한다.

아이 한두명 잘 기르고 다른 시간에는 자기생활을 찾겠다는 신세대불자 주부들의 욕구는 각종 문화센터 교양강좌의 만인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현재 불교계에는 길음종합복지관을 비롯, BBS불교문화센터, 불교전문문화원 등 20여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각종 교양, 취미강좌가 열리는 이곳에는 불자주부들의 배우려는 열기로 뜨겁다.

길음종합복지관 2층 직인본련실 출판강좌반, "드르르 드르르" 열네대의 재봉틀 앞에 앉은 주부들의 손놀림이 민첩하다. 오물은 현조각과 레이스를 이용해 소품꽂이를 만드는 날이다.



길음종합복지관에 개설된 출판강좌반은 연꽃 등의 불교문양을 개발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다.

"제 손으로 직접 집안장식을 해보고 싶어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출판강좌반 불자주부 김수자씨는 잘 만들지는 못하지만 스스로 만들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불교문화센터 화요일 서예반은 30명 정원에 31명이 수강. 강좌실이 만원이다. 특히 수강생 31명 모두가 불자여서 매주

모두가 함께 합창, 삼배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다음 강의를 시작한다. 은은한 목향내 속에 한자 한자 읊조리며 자신의 마음을 글씨로 그려내는 수행의 시간이다. 같은시간 3층 공개홀에서는 1백여명이 넘는 불자들이 함께 입을 맞춰 목청

높여 부르는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예전에는 시간 많은 중년, 노년층이 많았는데 요사이에는 30대 주부가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많이 알고 배우 스스로 자기를 개발하려는 주부들이 늘어나면서 강좌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말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미사족의 출현을 사회적 영향속에서 불자주부들의 의식 또한 달라졌다.

스스로 정보를 입수하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을 골라 각종 교양강좌에서 열심히 배운다.

실제로 요즘 가정생활은 주부가 가만히 집에만 있어서는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시간을 쪼개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신세대불자들의 에너지는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을 살찌우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은지 기자)

주 관	강 좌	연 락 처
길음종합 사회복지관	· 출판강좌 · 한복그림 · 소규모 꽃집 운영반	(02) 985-0161
불교문화센터	· 불교문화재 교실 · 불화그리기 · 서예 · 수직합 · 건강기공 · 만화 그리기 · 꽃꽂이 · 노래부르기교실 · 우리가락 민요배우기	(02) 703-0108
대중불교예술대학	· 주부를 위한 '가야금 · 관소리' 강좌	(02) 725-7527
불교전문문화원	· 다도부 · 사군자부 · 문인화부	(02) 732-2068
경주신라문화원	· 사진강좌 · 꽃꽂이 강좌	(051) 771-1350
광주불교교육원	· 불교문화 대강좌	(062) 228-9098
부산불교교육원	· 불교입문자 교육	(051) 466-4380

봉은사 무료 결혼식

봉은사(주지 무상) 결혼상담소는 11일 대웅전에서 제2회 무료합동결혼식을 거행했다. 부부예행사 일환으로 열린 이날 결혼식에서 그동안 식을 올리지 못한 4쌍의 부부가 혼례식을 올렸다. 봉은사 결혼상담소는 지난해 13쌍의 부부를 위해 무료합동결혼식을 거행하는 등 혼인신고는 했으나 가정 분위기에서 남편도 자연히 불자가 되리라 확실하다고

자모회가 참관된지 10년만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효도 사찰순례는 평소 조계사에서 신생활을 하고 있는 노보살과 일원진 부모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마련됐다. 안민행화 회장은 효도사찰순례에 앞서 "어른들을 모시고 사찰을 참배함으로써 효심과 신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효도 사찰순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길음복지관 강좌 신설

길음종합 사회복지관을 가을 맞이 강좌로 한지리 배우는 우리의 맛, 메이크업, 양재, 출판, 생활꽃꽂이를 신설했다. 이번엔 개설되는 강좌들은 24, 28일 개강한다. 한편 길음복지관은 일반인을 위한 국어, 산수과목을 지도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수업은 월, 수, 금 오후 2시. 문의 02)985-0161

관음사 합창단 창단

관음사 관음(주지 이두) 합창단 창단발표회가 지난 23일 관음사 법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당에서 주지 이두스님은 법문을 통해 "음성공양으로 불을 전파하고 불심을 전하는 포교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법회에 이어 찬불가 발표와 송년회사의 공연이 펼쳐졌다.

제 1회 효도사찰 순례 조계사 자모회 송광사서

조계사 어린이 자모회(회장 안민행화)는 조계사 노보살과 자모회·신도회 일원진 부모들을 초청, 제1회 효도사찰순례를 23일 전주 송광사와 진안 마이산 일대에서 갖는다.

부산여성불회, 부처님 점안

부산여성불회(회장 왕선자)는 지난 8일 부산 동래구 연산 2동의 사부처 법당에서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왕선자 회장은 이날 점안식에서 "서로 화해조성하고 불심을 돈독히 하며 애(愛)로써 상대의 허탈도 감싸줄 수 있는 도반이 되자"고 말했다.



인터뷰

"깨어있는 불자로 강단에 서고파"

「불교문화...」 수강생 황부경 주부



"강좌를 통해 자신을 개발하고 경건주부 독서토론회 같은 모임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은 포교가 퍼져 나가도록 하는 것이 신세대불자 주부의 특징이자 역할입니다."

불교 교양강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신세대 불자주부 황부경씨의 말이다. 젊은 불자주부들이 각종 강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스로 깨어있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그녀는 신앙생활도 남달라다 적극적이다.

정기적으로 서울 시간중 법연사에 나가 신심을 닦고, 중앙일보문화센터에서 '불교문화의 숨결' 강좌도 열심히 배우는 중이다. 또 지난해에는

순천 송광사에서 열린 생활인을 위한 여름수련대회에 참가해 신세대불자 주부로서 단단한 불심을 가꾸기도 했다.

"제 인생 최대의 목표는 남편을 불자로 이끄는 것입니다." 7개월된 딸 지현이가 조금더 자라면 아이와 함께 절에 나갈 예정이라는 그녀는 불교적인 자연스런 가정 분위기속에서 남편도 자연히 불자가 되리라 확실하다고

중앙대학원에서 불교미술사 공부중에 결혼과 출산으로 잠시 중단한 학업을 앞으로 계속할 생각이라는 황부경씨는 먼 미래에 '강단에 설 계획도 가지고 있는 아무진 신세대 불자 주부다. (은)

공 고

11월 7일은 중앙중회의원과 교구 중회의원의 선거일입니다

1. 불기 2538(1994)년 11월 7일(음력 10월 5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1대 중앙중회의원과 제1대 교구중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2.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 또는 사미로서 승랍 7년 이상인 중년 재직의 비구는 그 재직교구에서 중앙중회와 교구 중회 직선인 선출권이 있습니다. 비구 그 교구에 재직은 안되어 있지만 재직(본말사 주지, 본말사 암자 감원)하고 있거나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해당교구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상 거주승이 재직본사와 다른 현 거주지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교구본사에 비치된 소정의 신고서(주민등록초본 2통포함)를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해당교구본사에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중앙중회 직선의원 수는 각 교구본사당 2명씩입니다. 다만 해인사(3명)와 조계사(4명)는 그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24개교구본사에서 직선으로 뽑는 중앙중회의원 수는 51명이 됩니다. 중앙중회의원 가운데 10명은 비구에게서 추천을 받아 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적능대표는 10개 분야 20명입니다. 고로 중앙중회의원 수는 총 81명이 됩니다.

적능대표는 11월 8일 오후 3시 "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적능대표선출위원회는 개혁회의의 의장단 3인, 상임위원회 의장단 2인, 법제위원장, 법제위원회 각 분야위원장 7인, 초심조계회장, 제심조계회장, 법규위원장, 원로회의 사무처장, 대중행위조사특별위원회, 중법계정정특별위원회 대표 1인으로 구성합니다.

4. 각 교구본사에서는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중앙중회의원과 교구중회의원의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후보자는 각 교구본사에 비치된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구비서류(호적등본 2부, 수행이력서 1부, 반명함판사진 5매)와 함께 교구본사에 제출하여 등록합니다.

중앙중회의원은 승랍15년 이상(79년도 이전 79년 포함-승취득자), 연령 35세 이상(59년도 이전 59년 포함 출생)의 중년 재직승이든 재직본사에서 상관없이 어느 교구에서나 출마할 수 있습니다. 교구중회의원은 승랍10년이상 84년도 이전 84년 포함 승취득자), 연령 30세 이상(64년도 이전 64년 포함 출생)의 교구재직승과 1년 이상(주민등록상) 거주승은 그 교구에서 출마할 수 있습니다.

5.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중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 1) 총무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본사주지, 특별분담사찰주지(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연주암, 석굴암, 낙산사, 봉정암 보리암, 내장사)
- 2) 본종 승니의 계를 받고 승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미입적자
- 3) 재직의 경계를 받은 자
- 4) 공권징지의 경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5) 호계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6)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은 자
- 7)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설사찰을 소유하고도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전주 및 그 운영권자

8) 본종 소속 승려로서 본종의 관장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소속된 사찰의 관리인 및 그 운영권자

9) 면적의 정제로 인하여 해임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법에 의해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직선 교구중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 1) 위 5의 2)3)4)5)6)7)8)9)10)항에 해당하는 자
- 2) 본사 재직승이 아닌 자 또는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

7. 중앙중회원은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선거인명부를 검토합니다. 각 교구본사에서는 본사재직승을 바탕으로 재직승과 신고한 거주승 모두를 포함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10월 23일 중앙선관위에 제출하게 됩니다. 검토를 통해 이종등재는 없는지, 서류상 하자는 없는지를 가리게 됩니다. 투표권이 있는 승려는 어떤 경우에도 한 교구에서 중앙중회의원과 교구중회의원 선거를 함께 해야 합니다. 교구를 옮겨다니며 투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전교구에 걸쳐 한 번의 기재만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선거인명부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해당본사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후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11월 4일에는 선거인명부가 최종 확정 됩니다.

8. 중앙선관위와 교구선관위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중앙중회의원과 교구중회의원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9. 11월 7일 선거인은 승려중(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명서)과 도장을 가지고 각교구 본사내의 투표소에 오셔서 선거인명부에 날인하고 입후보자가 명시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하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10. 11월 7일 투표가 완료된 즉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하에 개표를 진행합니다. 이때 기우보자는 개표참관인을 둘 수 있습니다. 개표가 완료되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결과를 공포하고 개표목을 작성합니다.

11. 각 선거에서 유효부표의 득표가 같아서 당선임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승률이 높은 순으로, 승률이 같으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앞선 자를 당선임으로 결정합니다. 당선이 결정된 경우 중앙중회의원은 전국사찰에, 교구중회의원은 교구의 각사찰에 공고하며, 당선인에게는 당선증과 함께 당선되었음을 통지합니다.

12. 기타 연락 및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전화)02)732-6364, 732-6365 (팩스)732-6366

* 선거인정 공고(불기 2538년 10월 15일자)와 광고 내용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하스님의 등재는 사무적으로 생긴 오기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후보자 등록서류 중에서 호적초본 1부는 호적등본 2부로 변경되었음을 꼭오 없기를 바랍니다.

불기 2538(1994)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현호